

광양만권 입주기업 매출 30% 급증

13개 산단 작년 총매출 92조8000억...여수산단 70조 1위

광양을 중심으로 한 여수·순천 등 광양만권 13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제철소 연관산단, 여수국가산단, 순천산단, 울촌1산단, 해룡임대산단 등 인근 13개단지 입주기업들의 지난해 총 매출액이 9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30%인 22조 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단지별 매출액은 여수산단이 70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광양제철소 15조3000억원, 울촌1산단 3조1000억원, 광양연관산단 1조 7000억원 순이다.

이중 수출액은 307억5000만달러로 여수산단이 254억3000만달러(82.7%)를 차지했으며, 광양제철소 40억 3000만달러(13.1%), 울촌1산단 8억 3000만달러(2.7%), 광양연관산단 2억5000만달러(0.8%) 등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고용인력도

늘어나 광양만권 총 고용인력은 3만 4000여명으로 2009년 대비 11%인 3500여명이 증가했다.

단지별 고용인원은 여수국가산단이 1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제철소 6000명, 광양연관산단 4000명, 울촌1산단 4000명 등이다. 입주업체 수는 617개사이며 이중

84.1%인 519개사가 가동 중이고, 10%인 62개사는 건설 중이며, 5.3%인 33개사는 미착공, 3개사는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174개사(28.2%), 기계 148개사(24.0%), 철강 75개사(12.2%), 비금속 39개사(6.3%) 등이다.

광양만권경제청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이 지역 산업기업들의 매출과 수출 실적도 일제히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청장은 "매출액 증가에 따라 지난해 광양만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도에 비해 14.1% 늘어났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과 유용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항 3월 물동량 20만699TEU

개항후 월간 최고 기록

광양항이 개항 이래 월간 최고치의 물동량을 달성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항은 지난 3월 한달동안 20만699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해 개항 이래 역대 월간 최고 물동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3%가 상승한 것으로 부산

항 증가율 13.8%, 인천항 증가율 2.6% 보다 높은 편이다.

화물별로는 수출입화물 15만5000TEU, 환적화물 4만3000TEU, 연안화물 2000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의 지금까지 월간 최고 기록은 지난해 8월 19만1000TEU였다.

목포신항도 26만350 RT(Revenue Ton, 선박운임으로 선주가 부피나 무게 중 유리한 것을 적용)를 처리해 지

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4%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목포신항은 컨테이너 1만8000RT, 일반화물 2만RT, 수출자동차 22만2000RT를 처리했다.

이처럼 물동량이 증가한 이유는 전주(완주)~광양(순천)간 고속도로 개통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운송시간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성현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앞으로도 이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매립지 지원,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프리미엄 식품관에서는 봄철 입맛을 돋울 국산꽃게를 판매해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꽃게는 서해안에서 어획된 것으로 생물로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 노스페이스 이월상품전

광주신세계는 18일까지 정기바겐세일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구매고객에게 앤 에드워드의 아름다운 생활용품을 증정한다. 앤 에드워드는 영국 출신 동물 캐리터 일러스트레이터이며 그의 작품은 헤롯과 유명백화점은 물론 전 세계 42개국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다.

1층 시즌이벤트홀에서는 8~10일까지 '탠디·소다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11일부터 일주일간 '노스페이스·헤드 이월 상품전'과 '금강 균일가전'이 펼쳐진다.

8층 이벤트홀에서는 14일까지 '람제리·이너웨어 특가전'이 펼쳐지며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10일까지 '토종음식축제'가 열려 다양한 젓갈 및 반찬, 강정류를 선보인다.

2층 화장품매장에서는 인기 코스메틱 브랜드 사은품을 증정한다. 한편 이마트 지하1층 패션스트리트 이벤트홀에서는 10일까지 '별상품 참고 대공개전'이 펼쳐진다.

롯데 광주점 프리미엄 건강박람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7일까지 프리미엄 세일행사를 진행한다.

9일 토요일 1층 버버리 매장에서는 '버버리 에이프릴 샤워 컬러 런칭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닥스 여성 20%, 슈퍼레이 20%, 나이키 20~10%, MCM 10% 세일한다. 롯데카드도 금강·랜드로바 구매시 20% 할인 우대도 적용된다.

1층 화장품 매장에서는 에스티로더, 람프, 시슬러, 설화수 인기 브랜드 데이를 갖는다.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롯데 프리미엄 건강박람회를 진행하고, 9일 2시 6층 아동매장에서는 어린이 동반 고객에게 배에로가 만들어 주는 매직풍선 400개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

8층 사은행사장에서는 3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 선물을 증정한다. 스티브J&요니P 스카프 모자세트 또는 더샵 어반 에코에어 클렌징세트 중 선택해 하루 100명에게 증정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생명 싱크탱크 '보험금융 연구소' 개소

삼성생명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19층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싱크탱크인 '보험금융 연구소'를 개소했다.

이번 개소로 삼성생명은 은퇴전문 연구 기관인 '은퇴연구소' 상품연구 전문 '라이프케어연구소' 등 3개의 전문 연구소를 보유, 보험산업 전반은 물론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삼성생명 보험금융연구소'는 금융산업팀, 정책연구팀, 글로벌전략팀의 3개팀으로 구성돼 4명의 임원을 포함 총28명의 인력으로 출범한다.

순수 연구인력 19명은 전원 석·박사급으로 구성돼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우리나라 보험 및 금



융분야 최고 기업연구소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보험금융연구소는 보험 및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는 물론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과 연관성이 큰 신사업 기회 발굴 등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도 병행한다.

최대 연구소장을 맡은 광상용 부사장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향하겠다"며 "기존에 설립된 은퇴연구소와 라이프케어연구소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회사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작년 車보험 손해를 '80.3%' 사상 최고

작년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를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차량운행 증가로 사고가 잦아지는 데 자동차 수리비용까지 대폭 확대된 데다 기록적인 폭설 및 한파 등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71%가 보통 보험사의 손익분기점으로 꼽힌다.

7월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5.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소형사 6곳과 온라인사 4곳의 손해율이 각각 83.3%, 87.6%로 두드러졌다.

이처럼 연간 손해율이 80%가 넘는 것은 차량운행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8월(81.6%) 이후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손해율이 80%가 넘었다.

연환뉴스

광주신세계 여직원 휴게실 'VIP라운지' 수준



(주)광주신세계가 최근 백화점과 이마트 내에 있는 12개의 직원 휴게시설에 대한 리뉴얼 공사를 마쳤다. 현재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에는 광케는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성직원의 비율은 약 70%로 남성의 두배를 웃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통업계 영업 특성상 직원들을 위한 공간 보다 고객들을 위한 공간에 많은 투자를 했으나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영업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

을 위해 과감한 리뉴얼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리뉴얼 공사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친화 기업 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 2월 직장 내 보육시설 오픈에 이어 또 한번의 도약을 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리뉴얼을 위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VIP라운지 수준의 시설을 갖춘 휴게실 표준 메뉴얼을 만들었다. 협력사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반 침대용 휴게전용 의자도 별도로 제작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섬진강변 벚꽃길 따라 추억의 여행을 떠나보셔요~

구례군 구례군 의회

문척면 섬진강변

59 광주일보 1992-2011